믿음 · 정성 · 희망
박운종 세무회계 사무소
TAX ACCOUNTING & CONSULTING SERVICE
•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세무서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리과
• 의정부 조사1과(법인조사)
031)872-6116
016-684-2400
의정부시 의정부3동 98-2 유성B/D 3층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새포천고속관광(주)
Tel: 031)544-8888

"포천을 이끄는 人材되어 달라"

재경포천시민회 '경기도민회 奬學金' 전달식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는 10월27일 포천여성회관에서 포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민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경기도민회 장학금은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생 1백80만원, 2년제 대학생 1백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등이다.

경기도민회 장학회는 경기지역 젊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된 이후 꾸준히 기금을 조성한 결과 2006년말 12월 200억원을 돌파했다. 각 시군에 배정되는 장학생 선발은 시군의 인구비례에 의해 선발된다.

이번에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다. ▶김민선(고려대 4학년) ▶정명수(서울대 2학년) ▶유지은(서강대 3학년) ▶윤소라(삼육대 1학년) ▶이재호(인덕대학 1학년) ▶최신지(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김남수(포천고등학교 1학년) ▶박지숙(관인고등학교 3학년) 등 8명이다.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 회장은 "경기도민회 장학금은 경기도출신들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오늘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중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포천을 이끌어 가는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재경포천시민회는 10월27일 포천여성회관에서 포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민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나는 여행, 농촌체험학교 '만나맛나'

신북면 포천지동산촌마을 방문 촬영

우리 농산물을 찾아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신나는 여행, 농촌체험학교 만나맛나'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을 찾아왔다.

잣을 주제로 한 이번 방문은 EBS 촬영팀 25명과 서울영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명이 참여했으며 잣줍기, 잣주먹밥 만들기, 잣에 관한 퀴즈풀이, 잣의 영양소 알기 등 잣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촬영한 EBS 어린이 프로그램 농촌체험학교 '만나맛나'는 오는 11월 3일 오후 4시40분~5시 10분 농촌문화체험(잣)편에 방영될 예정이다. 지동산촌마을, 홈페이지 http://jdong.invil.org, 예약 및 체험문의 031)535-5399으로 하면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우리 농산물을 찾아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신나는 여행, 농촌체험학교 만나맛나'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을 찾아왔다.

10월 우승 10타 줄인 윤이용 회원

포천신문골프회 부회장에 윤종하 회원 선출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10월25일 포천아도니스GC에서 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정기라운딩을 개최했다.

이날 라운딩 후 가진 제19차 월례회의에서 박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기를 기원한다"며 "골프를 통해 회원상호간의 친목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열 상임고문은 "포천신문 각 소속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늘 마음을 써 주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골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소속 위원회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종하 회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해외연수 장소에 대한 의견교환후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2008년1월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1팀을 더 늘리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3명, 조사위원회에서 1명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라운딩에서 홀인원의 주인공 한희준 고문에게 홀인원패를 전달하고 다시한번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박승찬 경기위원장 ▶우승 윤이용 회원 ▶준우승 최호열 회원 ▶근접상 김영복 총무 ▶장타상 박영주 회원 ▶행운상 박운종 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이용 회원이 우승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사진은 좌로부터 포천신문 골프회 최호열 상임고문, 윤이용 회원, 박노현 회장)

한희준 고문이 홀인원 패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은 좌로부터 포천신문 골프회 최호열 상임고문, 한희준 고문, 박노현 회장)

국제로타리 3690 가족체육대회

국제로타리 3690지구 동포천로타리클럽에서 주관하는 국제로타리 3690지구 제15지역 제8회 합동주회 및 가족체육대회가 21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기상 3690지구 제15지역 대표 및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로타리 강령 및 포웨이 테스트 낭독, 공로패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합동주회가 끝난 2부에서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 체육대회를 즐겼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활발한 인도주의적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타리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㉚ 금눈쇠올빼미 [Little Owl]

러시아 마트로시카 인형을 닮은 듯한 귀염둥이

황금색 눈이 특징인 금눈쇠올빼미는 우리나라 올빼미가운데 가장 작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텃새이지만 천연기념물은 아니며, 우리나라 중부이북 지방에서 드물게 번식을 하지만 쉽게 관찰되지 않는 귀한 새입니다.

작년도에는 서산에서 번식을 하였다고 하고 금년도에는 인천 송도에서 어린새가 탈진한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충주에서 금눈쇠올빼미 성조가 관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작정 탐조길에 올랐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착한 곳은 맹금류가 서식하리라고는 상상도 할수없는 도심지의 하천 교각이었습니다.

난감한 심정으로 교각사이를 살펴보다가 문득 배설물이 잔뜩 묻어있는 교각사이의 후미진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서둘러 망원경을 꺼내 확인해보니 마치 러시아의 마트로시카 인형을 닮은 듯한 금눈쇠올빼미가 우리 일행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먹이를 향해 돌진할 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무섭다기보다는 오히려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맹금류의 위엄 있는 모습보다는 마치 관상용으로 키우는 애완조 같이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행이 있는 쪽으로 걸어나와 포토라인에서 우아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해주는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얌전한 모습으로 교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헛구역질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펠릿(Pallet)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셔터를 눌러대지만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촬영전 메모리카드를 확인하지 않은 사소한 실수를 범하여 결국 귀중한 펠릿장면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펠릿(Pellet)이란 먹이를 통째로 삼키고 소화되지 않은 깃털이나 뼈 등을 입으로 다시 토해내는 동작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맹금류들은 이런 펠릿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한 후에는 시장기를 느꼈는지 교각을 박차고 날아가 근처에 있는 전봇대에 앉아 우리 일행을 커다란 눈으로 쳐다본 후 어디론가 먹이 사냥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2007. 2. 4 충주에서 촬영

금눈쇠올빼미는 다른 종류의 올빼미처럼 귀깃이 없으며 머리가 둥글게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 새의 깃털은 부드러워 날아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아 먹잇감이 되고있는 쥐나 파충류, 양서류, 곤충 등에 쉽게 접근을 하여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는 소리도 마치 고양이나 갓난아기 우는소리와 비슷하여 가끔씩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지만 해충이나 설치류를 잡아먹는 익조(益鳥)입니다.

도심지의 하천교각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일행이 탐조를 다녀온 후 약 1달 정도 금눈쇠올빼미의 소식이 전해지다가 그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는군요.

먹이감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나 귀한 새가 도심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탐조인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심 속의 교각 틈 사이에 모처럼 찾아 온 진객이 둥지를 틀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건강한 새끼들을 많이 낳아 잘 길러 주길 바랄 뿐입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 상 일
017-705-0994

품격을 더한 골프 백화점 C&C 스포츠 · 골프 백화점

open 기념 세일 50%~30%

◆파사디(PASSARDI GOLF) ◆앙드레 김(Andre' kim GOLF)

골프용품
의류
전문상가

C&C 스포츠 매장 ➔
Tel. 031)541-4022

➔ 파사디 매장
Tel. 031)543-0749

➔ 앙드레 김 매장
Tel. 031)544-1452

1F 파사디 골프 · 앙드레 김 골프 2F C&C스포츠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9-14